정유사 도시가스 진출“불씨”

가스업계 피해의식 확산 … 독과점 우려에 따른 마찰 심화

도시가스 독과점문제가 관련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유사들의 도시가스시장 진출에 따른 독점피해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업간 감정대립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별 석유사업기금 배정현황(1994)
(단위 : 100만원)

지역	도시가스회사	지원금액
서울	대한도시가스	619
	극동도시가스	596
	서울도시가스	588
	강남도시가스	443
	한진도시가스	481
부산	부산도시가스	1,090
인천	인천도시가스	495
대구	대구도시가스	793
광주	해양도시가스	738
대전	충남도시가스	867
경기	삼천리도시가스	578
강원	대일도시가스	549
	원주도시가스	658
	영동도시가스	754
	동아속초도시가스	655
충북	청주도시가스	384
충남	중부도시가스	962
전북	전북도시가스	1,209
	군산도시가스	626
	보배도시가스	616
전남	목포도시가스	260
	동부해양도시가스	625
	대화도시가스	611
경북	구미도시가스	784
	포항도시가스	408
	삼마도시가스	835
경남	경남도시가스	826
	울산도시가스	1,050
합계(28개사)		19,100

자료) CRI

도시가스 공급자 배관망 사업지원(석유사업기금) (단위: 억원)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합계
지원금액	320	285	402	383	100	61	111	1,662

자료) CRI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기업은 모두 25개로 LNG권 가운데 서울이 5개기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각 2개사, 대전·충북·충남이 각 1개사로 나타났다.
또 LPG권은 전북·전남이 각 3개사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북·경남·강원이 각 2개사, 부산·대구·광주 각 1개사 등 모두 15개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유사의 시장진출 현황을 보면, 국내 최대 정유사인 유공이 모두 5개지역 6개도시가스기업에 지분율 19 100%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은 서울지역의 대한도시가스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충북의 청주도시가스, 충남 중부도시가스, 경북 구미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등 4개도시가스기업의 전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도시가스도 19%의 지분을 소유, 호남과 인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어 일정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LPG권역에서의 경쟁기업간 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시가스공급사업과 관련, 춘천의 대일도시가스 매각 당시 입찰에 응했던 동부화학, 대한도시가스(유공), 벽산 등 3개 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심한 경쟁으로 기업간 마찰이 심각하게 빚어졌던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결과 드러나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도시가스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유사의 시장진출의욕이 더욱 가시화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기업간 마찰과 함께 자금력을 앞세운 정유사의 독과점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유사의 시장진출에 대해 업계에선 「자금력 있는 정유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정유사 등 대기업진출은 자칫 중소가스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의 석유사업기금 지원을 대폭 줄이는 합리적 수단으로 이용돼 결국 정유사의 독과점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23>